

# 시대를 넘는 눈으로 평화의 새로운 가치 탐색

## 그랜드 피스 투어 1

정다훈 지음

여행은 호기심과 궁금증에서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나와 다른 시공간에 사는, 혹은 살았던 사람들과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행은 이해와 관용이라는 필터를 거치게 돼 있다. 어떤 여행은 갈등과 분쟁을 줄이고, 세계를 평화롭게 만든다.

하지만 그러한 여행을 경험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 냉전 이후 서구 자본주의 질서에 익숙해진 우리는 서구 중심주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평가했다. 여기에 남북 분단의 현대사는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상상력은 물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사상의 자유도 제한했다.

경계를 초월해 시대를 넘는 눈으로 세상을 담고 평화의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는 책이 발견됐다. '다문화의 세계 신화 여행'의 저자 정다훈 박사가 펴낸 '그랜드피스 투어1-유럽에서 전쟁과 평화를 묻다'다.

사실 '피스', 평화는 다양한 개념을 포괄한다. 환경보전일 수도 있고 인권존중일 수도 있다. 아니 그보다 더 확장된 평등한 삶을 전제할 수도 있다. 나아가 국가와 자본, 권력과 사회구조 등이 만들어놓은 경계와 한계를 넘어 이해와 관용을 체험하는 것이기도 하다.

저자는 2013년 베이징대학교 박사과



정 중 교환학생으로 와세다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했다. 이 과정에서 외교관으로서 국익을 위한다는 것이 인류의 평화와는 다른 방향일 수도 있음을 체험한다. 외교나 국제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힘의 논리이지, 세계평화나 연대가 아니었다. 고민의 와중에 그는 '위안부 여성을 잊지 말자'는 일본 시민들을 알게 됐고 민간/공공 영역에서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저자가 그랜드피스투어를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되고 본인도 직접 여행을 시작한다.

"나의 여행은 전쟁 패배로 인해 세계사 무대에서 조명되지 못했거나 그 때문에 폄하된 위대한 정신문명과 시민정신을 가진 나라로 향한다. '악의 축'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라는 고정된 관점으로 매몰된 국가들로 향한다. 사라져버린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류 보편정신을 찾으려는 의지, 현대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사실과 다르게 고착화된 이미지를 깨려는 '노력' 속에 '평화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으로 이어지는 전편일률적인 경로를 배제하고 '피스 루트'를 따라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로 삼는다. 독일에서는 우리와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영웅 기념비 앞에 비 오는 날 무릎 꿇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 이 사진 한 장 속에 담긴 빌리 브란트의 진정성은 폴란드의 오랜 원한을 씻어내렸다.

(서해문집 제공)

유사한 냉전과 분단의 역사를 보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본다.

폴란드와 발트 3국에서는 약소국가인 그들이 강대국을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역사를 만들어왔는지 들여다본다. 러시아에서는 세계를 뒤흔든 러시아 혁명의 흔적과 의의를 생각하며 서구를 달고자 했던 과거와, 서구와는 다른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현재의 움직임도 주시한다.

유럽 다음의 행선지는 중앙아시아 나라들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다. 1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서교

역로였던 중앙아시아에서 실크로드의 찬란한 흔적을 찾고, 한편으로 이곳의 풍부한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뜨거운 각축 현장을 소개한다.

저자는 역사적 공간 등을 방문하면서 '탈분단'의 한반도와 평화로운 아시아의 미래를 그려본다. 유럽을 여행하면서도 끊임없이 한반도, 동아시아 역사와 현실을 유럽의 공간에 띄우며 인류 보편의 가치를 찾는다. 85컷의 컬러 이미지가 입체감을 더해준다.

(서해문집·1만4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지적이고 과학적인 음주탐구생활=강원대학교에서 20년 넘게 '양조 공학' 수업을 통해 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온 허원 생물공학과 교수의 술의 맛과 향, 종류는 물론 역사, 산업, 사회상 등 술을 둘러싼 총체적인 인문 지식을 담은 책이 출간됐다. 와인, 맥주, 전통주, 독주 4개 장에 걸쳐 다양한 과학, 문화, 역사, 산업 등이 반영된 술 지식을 풀어놓는다.

(더숲·1만4000원)

▲창의성=개인의 창의성이 점차 중요해지는 시대, 창의적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의 뇌를 분석, 창의성의 근원을 탐구한다. 뇌의 생리와 해부구조를 파헤치며 현저성, 고전두엽성·저전두엽성, 작은세상망 등 개념을 통해 뇌의 작동 구조를 밝히고, 창의성과 혁신이 사회에서 나아갈 방향, 미래 인간 뇌의 발달 방식의 변화까지 예측한다. (시그마북스·1만8000원)

▲우리가 과학을 사랑하는 법=마리 퀴리, 로절린드 프랭클린, 김집동 등 현대 과학을 이끈 여성 과학자들이 원자부터 생태계, 지구, 우주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기여한 업적과 삶을 조명한다. '여성은 과학·수학에 약하다'는 오랜 편견을 깨고 한 명의 과학자로서 이름을 남긴 이들을 통해 과학자의 사회를 이해하고 과학하는 마음, 과학하는 삶, 과학을 사랑하는 것은 것의 의미를 찾는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닐슨 만델라의 위대한 협상=1990년 대 남아공 인종차별 정책이 종식된 뒤 백인들의 무장투쟁, 온건한 만델라를 비난하는 흑인 극단주의자들 등 인종 간 대립로 무려 총독을 눈앞에 뒀던 시기, 만델라가 벌은 장군을 이성적이고 진솔한 대화로 설득시켜 인종 분규를 종식시킨 과정을 살펴보는 책이다. 이를 통해 젠더 갈등, 정치 혐오 등 공감 없이 쉽게 혐오하는 현대 우리 사회에서의 극단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더숲·1만5000원)

# 누구나의 선생·아버지·친구였던 황현산의 트윗 문장들

##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황현산 지음

좋아하는 책이면서도,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은 아직 완독하지 못했다. 한 자리에서 읽어버리기 보다는, 곁에 두고 아껴 읽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었다. SNS를 하지 않는 터라 '트위터'라는 세상에서 황현산이 '어떤 말을'을 남겼는지는 거의 알지 못했다. 뒤늦게 그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고의 유연함'이었다.

황현산(1945~2018) 문학평론가의 1주기를 맞아 나온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그가 트위터에 쓴 글을 모은 책이다. 그의 트윗(아이디 'septuor1')은 지금도 36만 명의 팔로워를 유지하고 있다.



책에는 2014년 11월8일 오후 9시 6분 '트윗을 시작합니다'라는 첫 글부터, 2018년 6월25일 오후 5시 53분 '밤이 선생이다, 우물에서 하늘보기 이후 제가 쓴 글들을 모은 책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 책 표지를 올린 마지막 글까지 모두 8554개의 트윗이 담겼다.

그는 자신이 트윗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문학의 전문가로 문인들에게 우정을 표한다. 한국어의 제1급 사용자(이 점에선 겸손이 필요없다) 짧은 글짓기를 한다. 진보 성향의 독자인으로서 내 생각을 메모한다'라고 썼고, 다양한 글들을 올렸다.

"명랑하기는 성격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명랑하기는 윤리이기도 할 것이다. 늘 희망을 가지려고 애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만 명랑할 수 있지 않을까.", "정말이지 인문학은 무슨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하는 것이다.", "남의 불행과 고통에 반드시 공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감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의 공감을 위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책면을 지켜려 했으면 트위터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의 전공인 문학 뿐 아니라 가족 이야기, 정치 이야기와 세상 사는 이야기를 거침 없이 풀어낸다. 서너줄의 짧은 글들이지만 가슴을 찡고 새겨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많다. '촌철살인'이라는 단어가 저절로 떠오른다. 무엇보다 은근한 유머가 곁들여져 있어 유쾌하기도 하다.

서문을 쓴 아들 황일우 미국 마이애미대 교수는 "아버지는 늘 당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준비가 되어 계셨다"며 "아버지의 트윗들은 당신의 평소 모습과 가장 닮아 있는 텍스트다. 평소의 농담, 비상식적인 많은 것들에 대한 한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애정 어린 인사가 담겼다"고 했다.

책의 편집을 맡은 김민정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살아 있는 누구나의 사진이었고 살아 있는 누구나의 선생이었고 살아 있는 누구나의 아버지였고 살아 있는 누구나의 친구였던 이름 황현산"이라고. 그리고 이 트윗 모음은 "우리네 삶의 답답한 자물통에 열쇠가 된다"고 덧붙였다. 수많은 열쇠를 곁에 둔 셈이니 조금은 든든하다.

한편 1주기를 맞아 절판됐던 황현산의 평론집 '잘 표현된 불행'도 복간됐다. 그의 두 번째 문학평론집인 이 책에는 첫 비평집 '말과 시간의 깊이' 이후 10년간 썼던 글 가운데 시와 관련된 평문을 따로 모아 900페이지 분량으로 편집했다. (난다·2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어린이·청소년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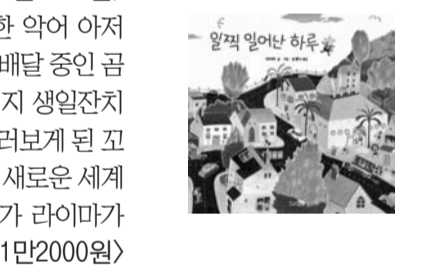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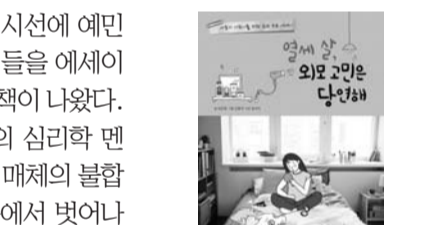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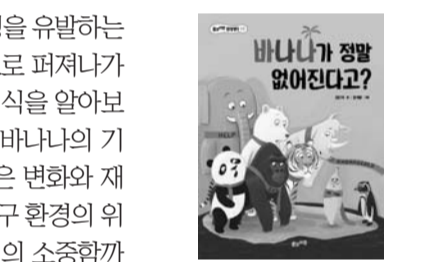
▲바나나가 정말 없어진다고? =바나나병을 유발하는 곰팡이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지금, 잘 몰랐던 바나나에 관한 지식을 알아보고 바나나의 멸종 위기 이유를 분석한다. 바나나의 기원부터 특징과 한살이, 바나나 산업이 낳은 변화와 재앙, 멸종 위기 해결책 등 사실들을 통해 지구 환경의 위기,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해, 생명과 자연의 소중함까지 깨닫게 해 준다.

(풀과바람·1만2000원)

▲열세 살, 외모 고민은 당연해=타인의 시선에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의 다양한 고민과 이야기들을 에세이로 담아, 외모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책이 나왔다. 아동심리전문가 김민화 유아교육과 교수의 심리학 멘토링 코너를 통해 아름다움의 기준과 대중 매체의 불합리한 외모 기준·치별, 상업적인 외모 기준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긍정하고 사랑하는 법을 깨닫는다.

(위즈덤하우스·1만2000원)

▲일찍 일어난 하루=거리 청소를 시작한 악어 아저씨, 장사 준비를 하는 판다 아저씨, 우유 배달 중인 곰 아저씨 등. 모두가 잠든 이른 아침, 할아버지 생일잔치 준비로 할머니와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둘러보게 된 꼬마 돼지 하루는 부지런한 이웃들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대만의 그림책 베스트셀러 작가 라이마가 쓰고 그렸다. (천개의바람·1만2000원)



광주역  
엔씨백화점  
광주역점  
오리거리  
아로마라이프  
성요한병원  
유동서거리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다른연속기형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 기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촉복빌딩(도곡동 518-9)